핫 이슈로서만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라 7:1~28)

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7. 아닥사스다 왕 제칠 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칠 년 다섯째 달이라
9.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핫 이슈로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핫 이슈로서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커다란 이슈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는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못했는데 사드배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를 두고 보복조치를 강행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에 의존적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이끄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관광업이나 면세점에 종사하는 분들은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300조원이나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다가는 이자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검찰조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고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슈 축에도 속하질 못하는 마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핫 이슈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조차도 사이드 이슈가 되어버린 채로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생기는 예수님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드 보복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이 사이드 이슈가 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검찰조사를 받는 것도 사이드 이슈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북이 핵실험을 할지라도 이것을 사이드 이슈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핫 이슈가 아니라면 그 살아계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핫 이슈가 되실 때에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개관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물며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에서조차 하나님이 핫 이슈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핫 이슈로서 유지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가정생활을 하며 자식들의 문제가 핫 이슈일 때가 있고, 건강 문제가 핫 이슈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이드로 밀려나십니다. 이슈는 문제나 쟁점이나 관심거리입니다. 여기에 핫(hot)을 붙이면 지금 살아있는 관심거리라는 의미입니다. 핫 이슈는 우선적인 메인 이슈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문제가 핫 이슈라면 하나님은 사이드로 밀려나시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러한 왜곡되고 촌스럽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우상화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에 1차 바벨론 포로귀환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고 80년이 지나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58년만인 BC 458년에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역대기와 에스라서를 기록한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이 에스라의 인도 하에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하만이 유대인 학살 계획을 세웠으나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활약으로 인해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왕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으로서 에스라는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때에 장정만 1,773명이 귀환하는데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약 9,000명 정도가 귀환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1차 때에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것에 비하면 적은 수입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에스라에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제사장이었으며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사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신하들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이루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이슈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1,500km의 거리를 이동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온 것인데 표면적 의미 아래에 풍부한 은혜가 숨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진정한 의의는 무엇일까요? 이제 성전이 재건축 되어 58년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성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문제는 성전 생활화가 퇴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성전에서 번제와 모든 제사의 제도를 확립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한다면 성전이 활성화되는 것일 텐데 왜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한 것일까요?
성전 생활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문제가 핫 이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슈가 되고 하나님만이 마음이 도달하기 위한 목표로서 확정이 될 때에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삶도 하나님의 통치영역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핫 이슈가 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벌어졌음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한 나를 번제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생활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핫 이슈가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선민들

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핫 이슈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귀환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율법에 대해 잘못된 접근을 해왔습니다. 율법을 가르침에 따라야만 하는 행위원칙으로서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우선적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말씀의 모음입니다.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물입니다. 율법을 마주 대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그 규정대로 행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의 핵심인 지성소 안의 법궤에는 말씀의 돌판이 있습니다. 이름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이름을 두셨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증거물로서 십계명 돌판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대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하겠지만 또한 그 말씀 자체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슈화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속의 핫 이슈는 돈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율법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을 들으면서도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율법을 듣는 동안 점차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핫 이슈로서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성전을 생활화하지 못했던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핫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문제들이 핫 이슈의 홍수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티끌 같은 지구위의 대한민국에 살면서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이드로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서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핫 이슈가 될 때에 율법이 정해놓은 행위원칙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돈을 좋아하면서 결코 몸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핫 이슈화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바로 하나님을 핫 이슈화하는 이슈 메이커들입니다. 제가 인터넷 등에서 목사님들의 세미나 광고 등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의 핫 이슈

는 교회의 숫자적 부흥에 관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나 교회의 조직화의 목적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실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여서 궁리하거나 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핫 이슈화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핫 이슈입니까? 예배당 건축, 교회 부흥, 재정문제나 어떤 프로젝트가 핫 이슈라면 목회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사명은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십자가 생활화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필요한 것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핫 이슈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핫 이슈가 되어야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 돈을 이슈로 사는 동안에는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돈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자녀의 형통이나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다가가고 싶은 돈이나 자녀의 형통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핫 이슈로 전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자녀 건강보다도 하나님이 마음의 핫 이슈로서 등장하시고 그때에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핫 이슈화해서 살 때에 자꾸만 마음속에 세상 소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핫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도 느낄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는 이슈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의 핫 이슈로 받아들일 때에,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핫 이슈화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이슈들에게 잠식당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이슈가 되는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사에 있을지라도 가정에 있을지라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핫 이슈화하기 위한 십자가 생활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신경써야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온 이유는 성전 생활화를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성전 생활화를 잊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적인 핫 이슈에 밀려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이슈화하기 위한 이슈 메이커로서 율법을 가르치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에스라와 같은 핫 이슈 메이커로서의 사명감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이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핫 이슈 되심을 유지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